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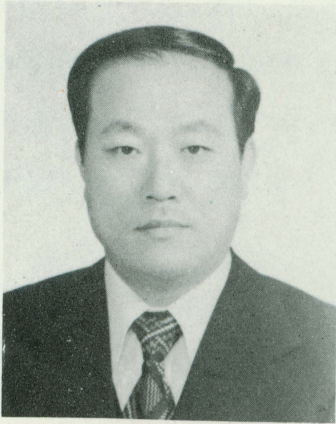
清道豊角農謠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3. 10. 21~23 안동시민운동장



경 상 북 도

人事말씀



菊香 그윽한 豐饒로운 季節 文化의 달을 맞아 鄉土文化를 啓發하여 愛鄉心을 鼓吹하고자 이곳 慶北 安東에서 베풀어지는 第24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清道豐角農謠”가 出戰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民俗藝術은 人類文明의 原形이자 現代文明의 母胎로서 自然과 欣然히 合一하여 이웃과 한몸이 되고 흥과 신명이 있으며 高度로 整齊된 해학과 익살이 있는 傳統文化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傳統文化에 對한 높은 矜持와 깊은 理解를 가지고 옛 것을 오늘에 되살리며 그것이 얼이 되고 힘이 되어 生活의 創造能力으로써 살아 움직여야만 世帶의 흐름에 따라 文化의 꽃을 피우고 알찬 열매를 거두어 길이 後世에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紹介하게 되는 “清道豐角農謠”는 時和年豐을 祈願하면서 마을住民 全部가 共同營農에 參與하는 놀이입니다.

이러한 種目を 全國에 紹介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된 것을 320萬 道民과 함께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祭典이 祖上의 얼과 슬기를 오늘에 되살리고 飛躍하는 民族의 雄志를 일깨우는 文藝振興의 起爆劑가 되어 고장 자랑이 나라 사랑의 原動力이 되기를 衷心으로 期待하는 바입니다.

1983. 10. 20

慶尙北道知事 鄭 塚 鎮

1. 사회적 환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 바닷들 일대는 옛 부터 신라고촌(新羅古村)이라 불려질 정도로 역사깊은 각성(各姓)마을들이 모여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인 가운데 3천여 두락의 문전옥답을 끼고 순전한 벼농사에만 종사해온 전형적인 농촌으로 청도군 소재지인 청도읍으로부터 서쪽으로 사십리 거리에 위치한 경북과 경남의 도계에 접한 마을이다.

2. 농요의 유래

풍각농요는 옛 부터 이 지방 고유의 민속으로서 일년농사의 시화연풍을 기원하면서 농사력(農事曆)에 따라 이른 봄의 보(洑)가래질에서 부터 세 벌논 매기까지 마친 후 농악대를 거느리고 소를 타고 들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까지의 거의 모든 농업 노동에 따른 노래로서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놀이다.



3. 농요의 형식

풍각농요는 “선 소리꾼”이 앞에서 북을 치며 노래를 먹이면(先唱을 하면) 일꾼들이 받아서 후렴을 합창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사용도구로는 매투, 징, 대북, 장기, 도리깨, 우장, 갈구리 등 35종이나 된다.

4. 농요의 특징

이번에 선보일 본 농요에 참가하고 있는 인원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노인



들로 조직되어 있고, 노래의 종류마다 가락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화려한 소도구와 의상을 곁들이고 있으며, 상머슴, 중머슴이 함께 소(평이말)를 타고 흥겹게 춤추는 행렬등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5. 농요의 내용

순수한 논 농사에 의존하며 벼와 보리를 재배하는 농촌지역이라 마을주민들 모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해 오는 마을로 되어 있으며 농요의 내용은 가래질 노래, 모찌기 노래, 모심기 노래, 보리타작 노래, 아시논매기 노래, 두 벌논매기 노래, 세 벌논매기 노래, 그리고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노래에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조지미 노래”가 덧붙는다.



농요노래

1) 가래질 노래

조금만 나린줄기 골골마다 보생겼네
이가래 저가래 보가래에 보만치면 물나온다.
이때 저때 어느때고 춘삼월 호시절에
잎은 피어 청산되고 꽃은 피어 화초로다.



2) 못찌기 노래

바다야 같은 이 못자리 장기판만큼 남았구나
장기판도 좋다마는 도울이 없어 못 찌겠네
모야 모야 노랑모야 너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커고 훗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지

3) 모내기 노래

서마지기 이 논땀이 모를 심어 장할테라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술을 심어 정자로다
해 다졌네 해 다졌네 양산땅에 해 다졌네
해 다지고 다 저문날에 우연한 행상이 지나가네

4) 김매기 노래

애이오홍 오홍해야 애이오홍 오홍해야
논을매는 농부들아 애이오홍 오홍해야
오뉴월 삼복더위 애이오홍 오홍해야
구슬같은 땀이흘러 애이오홍 오홍해야
어떤사람 팔자좋아 애이오홍 오홍해야



5) 김매기조짐 노래

옹해야 옹해야
적자는 학을타고 옹해야
맹호는 소를타고 옹해야
이태백은 고래타고 옹해야
춘향은 배를타고 옹해야
어화둥둥 내사랑아 옹해야
앞을봐도 내사랑아 옹해야
뒤를봐도 내사랑아 옹해야

6) 보리타작 노래

애화 애화
이 보리가 애화
무슨 보린가 애화
양반에 보린가 애화
수염도 길다 애화
이 보리가 애화
상놈 보린가 애화
수염도 짧다 애화



출 연 자 명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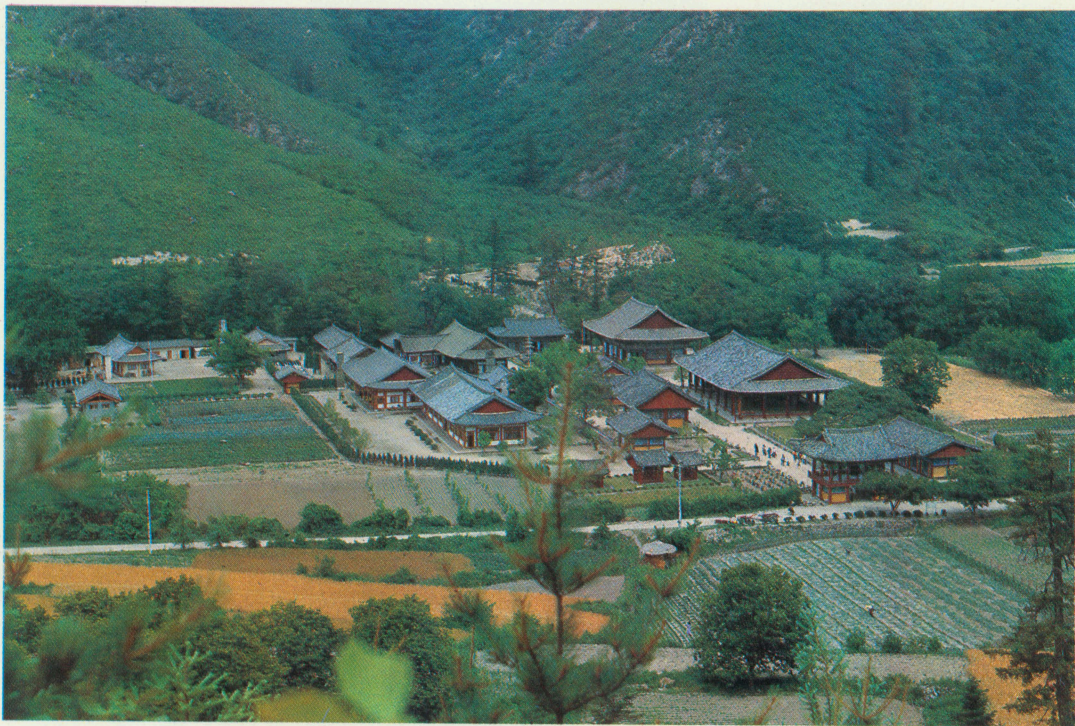
마을	담당역	성명	연령	성별	마을	담당역	성명	연령	성별
차산	상쇠	김오동	61	남	차산	주인	박민수	53	남
"	중쇠	박수웅	40	"	"	나관	김위근	68	"
"	"	조화재	64	"	"	고동	석삼용	59	"
"	징	조제복	65	"	"	모	조재권	65	"
"	"	최달수	67	"	"	"	조이제	65	"
"	"	최구식	67	"	"	"	이인구	75	"
"	"	도필경	66	"	"	"	이태산	82	"
"	장고	최정득	61	"	"	"	이재영	62	"
"	장고	지기원	63	"	"	"	우종일	68	"
"	"	조득환	65	"	"	"	김사곤	67	"
"	"	박해수	62	"	"	"	허성기	65	"
"	대북	임정희	62	"	"	"	박성수	62	"
"	"	박용희	60	"	"	"	김인희	64	"
"	"	박수연	58	"	"	"	유방우	79	"
"	"	백용만	59	"	"	"	손명현	66	"
"	"	김삼달	67	"	"	"	변수필	63	"
"	"	조기호	66	"	"	"	김영득	66	"
"	큰머슴	배재숙	60	"	"	"	박경만	60	"
"	작은머슴	김경채	60	"	"	"	박인희	62	"
"	모줄	강기석	61	"	"	"	서정태	65	"
"	"	조수용	59	"	"	"	김한진	45	"
"	지계	전기식	58	"	"	"	김위수	64	"
"	천왕기	변삼출	44	"	"	주인아주마	윤금란	60	여
"	"	정기덕	61	"	"	"	강분조	64	"
"	농기	우무수	64	"	"	"	이월기	61	"

조사연구및 지도교수 : 최 정 여 계명대학교 교수

김택규 영남대학교 교수

권영철 효성여자대학교 교수

전승자 : 김 오 동 청도군 풍각면 차산동



운문사전경



씨없고 당도 높은 “청도감”